

현대불교 제2회 신행수기 대상(유마상)

언젠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역경원에서 번역한 <한글대장경>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 큰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1권을 샀다. 내가 불교 전문학자도 아니지만, 딱히 번역한 경전이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집에 쌓아 놓으니 드나드는 도반들이 물어왔다. 저렇게 많은 경전을 뭐하러 샀냐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이 들면 경전이나 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짐짓 멋있게 꾸며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들도 공감하며 <한글대장경>을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8권을 구입하게 됐는데, 보살을 통해 8권을 팔게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역경원에서도 놀랐다고 한다. 사실 주부들이 경전을 산다고 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뜻있는 사람이 단체에 기증을 할 수도 있고, 번역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사도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 마음만 앞서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불사 본래의 서원보다는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자신의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사중의 가장 중요한 불사는 인연불사다. 어떤 인연이든 나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인연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인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소홀함이다. 일이든 사람이든 소홀히 하면 내전이 안된다. 특히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연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삶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력도 많

이한다. 내가 좀 순서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어느정도 몸이 배었다. 혼승이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포교에 무척이나 적극적인데, 그 집안은 우리도 본받아야한다. 교회에 나가는 부인의 경우 옆에 남편 몫의 성경 책을 펴놓고, 나오지 않은 남편의 구두만이라도 가져오는 정성만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포교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조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남편을 절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요즘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공부를 하고있다. 우리집은 늘 그대로가 법당인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 품안에 들게 된 것은 남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3년전 남편은 26년간 다니던 직장을 힘겨워했다. 그때 나는 두말 않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수고했다. 이제는 옷을 벗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편의 퇴사를 받아들였던 나는 분주하게 새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때 주변의 도반들이 큰 힘이 되었다. 조건없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 주었으며, 지금까지 잘 꾸려가고 있다.

무슨 대단한 이적이거나 신비한 영험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전폭적인 도움, 그 자체가 나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한 달인 8월이면 창립 기념으로 불교방송국에 약간의 성금을 보낸다.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며, 도반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나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작년 12월까지 6번의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실질적인 고통도 느꼈으며, 수술로 인한 내 몸의 변화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나와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한 어떤 환자는 죽음과도 같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수술실로 들어갈때 웃으면서 들어갔고, 항암주사를 맞으면서도 아무런 내색없이 묵묵히 내 생활을 그대로 했다. 나는 오히려 퇴원을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집으로 오게된 것이 부처님 덕분이라는 생각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나는 큰 아이가 붙여준 '방이동 포교국장'이란 별명이 과하기는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든다. 내집을 법당으로 만들어 존경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을 하고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이란 가난을 팔고 부자를 사오는 곳이고, 슬픔을 주고 기쁨을 가져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실제로 내 경우는 그랬으니까.

연꽃을 피우기 전에, 연꽃을 피울 진흙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일에도 들뜨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부처님 전에 늘 하는 기도의 말씀을 올린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웃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복을 짓도록 노력을 할까요'

당선 & 감



이란 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연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일들을 챙기느라 마음만 급했다. 그러는 한편, 마음먹은대로 이루지 못한 한 해의 삶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연말이면 늘 쓸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적지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중한 인연을 되살리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며, 그간의 고마운 사람들을 마음껏 추억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 좀더 욕심을 내어 현대불교신문사의 '신행수기' 공모에서 대상으로 뽑혔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기쁨보다 죄송한 마

아름 위로해준 이웃 덕분에요

음이 앞선다. 내 기본으로 내가 만난 사람과,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 주신 부처님 자랑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되니 몸뚱 바를 모르겠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 부처님께서 어려운 일을 이길 힘을 함께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나혼자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도반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준 애정의 힘으로 고통을 헤쳐가는 것이다.

길지않은 부처님과의 만남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부처님께로 주저없이 이끌고 왔다.

참으로 박찬 뜻밖의 선물이다. 특히 내 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과 여학회, 운주회의 도반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다. 두서없는 글을 뽑아 주신 신문사에도 감사를 드린다.

병마를 달고 일어나 새로 맞이한 삶을 격려해주는 큰 힘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한다.

스님들 수시로 오셔서 주무시고 매달 거실에서 법회가 열리니 아들은 나를 '방이동 포교국장'이라 불러

다 른 일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내게 딱쳐온 불사는 나는 반드시 동참을 한다.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정도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처님 일에 기꺼이 참여해 왔다.



절에 간다고 집안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 저절로 가족들이 따라나서도록 열심히 했다. 부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더 부지런해지고, 다음도 노력하겠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전법이 잘된다고 믿는다.

군대에 간 우리 큰아이는 나에게 '방이동 포교국장'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수시로 스님들이 찾아오셔서 주무시고 가고, 한달에 한번 이상은 집안 거실에서 법회가 벌어지니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 권도 나의 권유로 송광사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으며, 두 아이도 수련회의 자원봉사를 시켰다. 작년 여름에는 내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병이 나서 내년으로 미뤘다. 남편이 송광사 수련회를 참여한 것은 스님의 권유 때문이기도 했다. 스님의 말씀이라면 남편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남편 몰래 스님께 부탁을 드렸었다. 내 예상대로 남편은 동참했으며, 그런 남편이 고마와 나는 3배를 올리려고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망을 못했다. 수련회 참석 이후 남편의 신심은 날로 증강해 지금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내가 입원을 한 이번 여름, 남편은 내내 봉은사에 나가 새벽 기도를 했으며, 지금도 일을 마친 저녁이면 꼭 기도를 한다.

신행수기 당선작

본사가 주관한 제2회 신행수기공모에는 모두 82편의 수기가 응모됐습니다. 신행현장에서 느낀 감동과 부처님 가피력의 생생한 증언들을 보내 준 응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거쳐 뽑힌 당선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대상(유마상)
 - ▲이란 <46·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우수상(본사 사장상)
 - ▲이영자 <서울 강북구 수유5동> '새싹들에게 주는 좋은약'
 - ▲박민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이름 끌고 다니는 물건찾아
- ◇특별상(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 ▲최성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생명을 바쳐 불법주고 떠난 아들'
- ◇특별상(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 ▲이영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나의 수행 역정기'
- ◇특별상(천태종총무원장상)
 - ▲장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건 없는 삶'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각성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전화 : 474-0554
팩스 : 472-5292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전화 : 732-1206~8 · 팩스 : 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분설
기획실장 문중순

동명불원

주 지 영산 덕천
신도 일동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7호
전화 : 3427-0108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즐리우면 자고

최신간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러다고, 앞저는 월급봉투, 가버워지는 호주머니, 감원이나 명예퇴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생활 같은 메시지!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알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었던 몸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바람일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단려진 논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결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결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묵막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결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슬픈 삶의 고비길에서 보살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꺾이는 마음의 함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생분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줄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24세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니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현2권/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대이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